

the PEACE JOURNALIST

이번호에는..

- 라디오를 통한 평화세우기
- 카메룬, 인도,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에서 온 소식
- 평화저널리즘 신간 소개



제이크린치: 갈등프레임에서 평화저널리즘을 논하다

대한민국



목 차

the PEACE JOURNALIST

피스저널리스트는 미국 미주리주 파크대학교의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 (the Center for Global Peace Journalism) 에서 반년간으로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입니다. 피스저널리스트는 평화저널리즘 실천가와 교사, 학생들을 위한 뉴스 및 정보 확산을 위해 일합니다.

피스저널리스트는 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평화저널리즘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 제안 등의 짧은 소식(500자 내외)부터, 평화 및 갈등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저널리즘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관련 분야 학술 연구(1000-1500자 내외)도 환영합니다. 전반적인 평화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보다는, 분명한 미디어 중심 시각에 기초한 소식을 받습니다.

마감기한: 3월3일(4월호)/ 9월3일(10월호)

편집: 스티븐 영블러드(Steven Youngblood)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장

감수: 캐롤 게티(Prof. Carol Getty)

문의:

steve.youngblood@park.edu

트위터-@Peace Journ

페이스북-Peace Journalism group

Center for Global Peace

Journalism, Park University

8700 NW River Park Dr

Parkville, Missouri 64152 USA

www.park.edu/peacecenter



A Park University Publication

3 한국

평화저널리즘, 갈등 완화시킬 수 있나?

6 인도

간디:원조 평화 저널리스트

8 미국 미주리주

라디오로 평화세우기

10 콜롬비아

포토저널리즘으로 평화를 돕다

11 카메룬

저널리스트, 평화활동을 평가하다



12 콜롬비아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평화세우기

13 미국 뉴멕시코

세미나: 소셜 미디어와 평화

15 코스타리카

유피스, 새로운 학위과정을 시작하다

16 나이지리아

소셜 미디어, 선거, 평화에 대하여

18 세계

평화저널리즘 신간 소개

19 미국

평화를 위한 폭력적인 언어 탈피

22 조지아

평화저널리즘과여성

23 콩고

공동체 라디오와 평화

24 케냐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사진 게시

26 파키스탄

미디어와 평화 컨퍼런스

평화저널리즘이란?

평화저널리즘은 편집자와 기자가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고 평화적인 시도나 평화활동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평화저널리즘에 포함됩니다(평화저널리즘, 제이크린치&맥골드릭).

평화 저널리즘은 평화적인 시도와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보다 가시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평화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습니다.

더 많은 평화저널리즘 자료나 관련 온라인 링크는 www.park.edu/peacecenter 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는 갈등, 사회 불안, 화해, 해결 및 평화에 관한 보도 개선을 위해 전세계 언론인, 학자 및 학생들과 협력합니다. 이 저널을 포함하여, 수업, 워크숍, 강연, 블로그 및 기타 자료 등을 통해 미디어가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거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극적인 주류 언론에 대응하여 민족/인종/종교 소수 집단, 여성, 청년, 이민자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시각을 제공하는 기사 제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평화저널리즘,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실마리

제이크 린치 Jake Lynch

“북한을 사악하게 묘사하면 안된다. 악마는 협상하지 않지 않느냐. 협상이 없으면, 전쟁이 올 수밖에 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 컨퍼런스에 모인 언론인들에게金正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과거 군비 통제 협상의 ‘키맨’이다. 대학에서의 경력을 밑거름 삼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직을 지냈고, 현재 대한민국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호주 미디어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봐도 문 특보의 조언은 시의적절 하다.¹ 호주의 두 주류 신문사와 공영 방송 ABC의 보도에서 북한은 주로 ‘무자비한 사이코패스’ 지도자가 이끄는 망나니, 의문스러운 전체주의 체제, 악마 국가로 묘사된다. 이런 지배적인 메타포는 북한을 ‘군사적 위협,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며 무자비한’ 국가라는 프레임에 가둬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형적인 패턴일 뿐더러, 비단 호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이런 국제적인 취재 풍토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번 컨퍼런스의 패널이었던 CNN 서울 특파원 파울라 헨콕(Paula Hancocks)은 김 위원장이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친척 한 명을 개 먹이로 주어 제거했다는 다수 언론



서울에서 열린 2018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발언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했던 사례를 떠올렸다. 애틀랜타에서 온 기자들은 여러 곳에서 방영된 바 있는 해당 소문에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헨콕은 그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주의를 권고했다.

평화저널리즘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독자와 청중이 남북간의 모든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한반도 갈등에 대해 비

폭력적인 대응을 우선 고려하고 가치를 부여 하도록 독려할 방법은 무엇인가?

한 가지 방법은 갈등 양측의 과거 슬로건을 분석하여 당사자들의 목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실 1950년~ 53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전이 선언된 바 없다. 남북은 휴전을 의미하는 비무장지대(DMZ)로 분리되어 있다. 문 특보는 이런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자신을 ‘패배한 나라’로 인식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미국에 항복해야만 하는 나라로 취급하지 말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자는 제재 해제와 같은 양보를 위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군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미국의 강경한 목소리에 회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해당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접근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요한 갈통 (Johan Galtung)이 처음 제안한 평화저널리즘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지도자만이 아닌 ‘피스메이커 일반인’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제이크 린치(Jake Lynch)는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는 평화 및 갈등 연구 부교수로, 옥스포드에서는 역사 소설 집필과 아마추어 연극 활동, 지역 책모임을 운영하며 지낸다. 린치는 스카이 뉴스(Sky News)의 정치부 특파원, 인디펜던트지(Independent)의 시드니 특파원, BBC 월드 TV 발표자로 활동하며 저널리즘 분야에서 20년간 경력을 쌓았다.



평화저널리즘 연구, 훈련 및 개발 활동으로 셴겐 평화재단(Schengen Peace Foundation)이 수여한 2017 룩셈부르크 평화상(Luxembourg Peace Prize)을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리버풀 교환교수로 코벤트리 대학교에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필자가 서울로 떠나기 몇 달 전, 미국 출신 베테랑 핵군축 운동가인 조셉 거슨(Joseph Gerson)의 시드니 엑소더스 재단(The Exodus Foundation) 연설이 있었다.

북미 회담은 트럼프의 주도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회의적이었다. 민주당의 전형적인 노선은 “모든 것이 가짜다. 트럼프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였다. 그러나 거슨은 이 대신 비핵화를 향한 현실적인 진전과 ‘무역 및 의약품 수출 금지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좌파로부터의 공격: 협상팀 구성 요구’이라는 공식적인 의제 설정을 제안했다. 이는 필자가 서울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갈등의 평화 활동 보도를 위한 주요 권고 사항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계획은 과정인가 아니면 단순 결과인가? 오늘의 헤드라인을 넘어서,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그것이다.

엘리트가 아닌 목소리가 미국 측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을만 하다면,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 및 전쟁 종식을 위한 여성 행동(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War)’은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와 위민크로스 DMZ(Women Cross the DMZ)의 활동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는 제재를 해제하며, 개인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2018년의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얻은 가장 큰 이득은 ‘동결 대 동결’이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대가로 더 이상의 평양 핵무기 실험은 없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평화 운동가들은 합동 군사훈련을 영원히 중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 주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은 작년 10월 ‘국제 관함식’을 주최한 새 해군기지 건설로 파괴당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협의회는 제 3국에 군함을 보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 더 많은 언론이 그러한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평화세우기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드러내는 한층 세심한 보도가 등장했을 것이다.

애나벨 맥골드릭(Annabel McGoldrick)과 필자가 평화저널리즘²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간 전세계의 언론인들과 나눴던 담론과 뉴스에 대한 비공식적인 의견을 주류 언론에 피력시키기 위해서는 저널리즘과 스토리의 관련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해의 틀”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오늘날의 언론인이자 전문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역할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18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평화저널리즘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제이크 린치교수

서울 저널리즘 컨퍼런스의 또 다른 패널은 톰 로젠스틸(Thomas Rosenstiel) 미국언론연구원(API) 원장이었다. 로젠스틸은 현 세대의 대중이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은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구별하는 ‘뉴스 유창성(News Fluency)’이라고 짚었다. 편집자와 기자는 대중들에게 ‘이것이 왜 혹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20세기의 저널리즘이 독자와 시청자에게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21세기라는 전례없는 미디어 절정의 세계에서 이 메시지의 출발점이 달라졌다. 현 시대에서는 거꾸로 독자와 시청자가 언론에 신뢰의 결과로서의 투명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호주의 언론 매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을 악마처럼 묘사하는 보도 대신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보도하는 것이 미디어 풍토를 바꿀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필요한 접근 권한을 얻는 것이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영상이 최근 호주에서 방영되었다. ABC 방송국의 외신 기자는 우리를 북한의 다제 내성 결핵 환자(전 세계적으로 매년 50만명이 앓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 치료센터와 유진 벨 재단(Eugene Bell Foundation)에서 파견된 자원 봉사자



들이 함께 일하는 독특한 북미 협력사업의 심장부로 끌어들였다.

‘6개월 후 만납시다 : 북한 결핵병원 이야기(원제:Out of Breath)’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 영상은 더 널리 상영될 가치가 충분한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필름이다.³ 영상 제작자인 석혜인 감독은 “나는 처음 결핵 센터를 방문했던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⁴ “우리가 센터에 들어서자 북한 의료팀이 함박웃음을 짓고 달려나왔다. 마치 수십년 동안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해 온 오랜 친구와 상봉한 느낌이었다 ...그때, 북한 사람들에 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모두 지워버렸다.”

이 28분 길이의 영상이 긴 형식의 저널리즘이라고 볼 때, 다큐멘터리는 평화 저널리즘 방식이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장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형태의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진부함을 넘어서고, 해결되지 못한채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표와 의제를 다루며, 평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때다.

참고자료

1. Bronwen Dalton (2019) ‘Hermit kingdom, nuclear nation: if the media keep calling North Korea names, it will only prolong conflict’. The Conversation, February 28, retrieved from link: <https://theconversation.com/hermit-kingdom-nuclear-nation-if-the-media-keep-calling-north-korea-names-it->

will-only-prolong-conflict-112507

2. Jake Lynch and Annabel McGoldrick (2005) Peace Journalism. Stroud: Hawthorn Press

3. <https://www.abc.net.au/foreign/out-of-breath/10825830>

4. Hein S Seok (2019) ‘Amid international tensions, the battle to treat “contagious cancer” in North Korea’. ABC News, February 19, retrieved from link: <https://www.abc.net.au/news/2019-02-19/north-korea-contagious-cancer-battle-amid-international-tensions/10822102>

간디: 원조 평화저널리스트

압힐라쉬 찬드란 *Abhilash Chandran*

저널리즘의 진정한 기능은 대중의 마음을 교육하고, 대중의 마음에 어떠한 인상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인은 각자의 재량대로 무엇을 언제 보도할 지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은 사실 전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저널리즘은 사건에 대한 지적인 기대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 지도자이자 사회 혁신가이면서 훌륭한 소통가였다. 간디는 소통이 여론을 형성하고 대중의 지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확실히 깨닫고 있었다. 이번 해에 탄생 150주년을 맞는 간디는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었고 여론을 동원하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신문 기사를 쓰곤 했다. 기사 주제는 다양했는데, 모두 간디의 정직하고 청렴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담는 글이었다.

간디식 저널리즘은 인디안 오피니언 (Indian opinion), 하리잔(Harijan), 영인디아(Young India)와 같은 출판물과 그의 인생에서 추구했던 가치와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뚜렷한 신념을 바탕으로, 간디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원칙을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에도 적용했다. 간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슴 아픈 상황을 대담하게 직면하면서, 진실에 대한 질문과 경험을 거침없이 글로 남겼다. 특히, 신문의 가

압힐라쉬찬드란
(*Abhilash Chandran*)은 인도 케랄라 프리야다르시니의 마하트마 간디 대학교에서 간디 사상과 개발학



철학(the School of Gandhian Thought And Development Studies) 석사과정에서 간디학을 연구하고있다.

치는 대중의 입장을 지지할 때 생긴다고 믿었다.

간디 저널리즘

간디 저널리즘은 간디가 가진 삶의 접근법과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독립 투쟁의 근본 이유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헌신의 결과물이다. 즉, 공산주의와 인도주의의 저널리즘이었다. 그는 비폭력 (ahimsa), 자기 의존 (swadeshi), 자기 통치 (swaraj), 진리 - 힘 (satyagraha)에 대한 철학에 기반을 둔 고귀한 목표가 있었다.

이는 간디의 저널리즘과 구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파다 야트라(Padayatra)와 같은 인도 도보 여행은 물론, 중재 활동, 금식 및 기도 모임과 같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¹

간디는 자극적인 주제로 기사를 쓴 적이 없다. 그 대신 건설적인 활동이나 무저항 불복종 운동(satyagraha), 비폭력, 식생활, 자연 치유, 힌두 - 이슬람 연합, 불가촉 천민, 물레, 카다르(Khadi, 손으로 짠 무명), 스와데시(swadeshi, 인도산 제품), 마을 산업, 금주법에 대해 썼다. 간디는 교육 및 식습관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국가 결함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²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간디는 운동이 자체적인 뉴스와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디언 오피니언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간디는 자서전과 저서에서 남아프리카의 사트그라하에 대해 챕터를 따로 할애하여 강조했다. 신문을 왜 그리고 어떻게 출간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을 보면 저널리스트로서 간디의 전문성과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뉴스 매거진 출판의 어려움과 광고 및 재정적 측면을 아우르는 경영 차원의 문제도 다뤘기 때문에, 현 시대의 저널리스트와 출판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³

간디는 신문이 “사심없는 봉사”여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고, 따라서 막대

한 이유를 추구하는 상업 광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간디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주 목적을 흐트러뜨리는 광고는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신문을 팔고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광고에 지면을 할애하는 대신 더 나은 사회운동을 위해 쓰고자 했다. 간디는 저널리즘을 정치 운동의 구조적인 기반으로 삼았다. 물론, 간디의 운동은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 인간 위엄과 자기존중을 위한 투쟁까지 뻗어나갔고, 인도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정치적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냈다.

오늘날, 저널리즘은 수익을 무한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화수분과 같은 도구로 여겨지지만, 간디에게 수익이란 정신적 차원의 것이었다. 사회 인도주의 운동가였던 간디의 저널리즘 저변에는 극빈곤층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깔려 있었다. 그는 최대한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간디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대해 E.F. 슈마하는 간디가 강도 높은 전통적 노동 접근 방식으로 서구 산업화와 대량 생산에 저항했던 부분을 강조했다. 신문 유통 방식 또한 독특했다. 수익원으로서 광고에 의존하기 보다, 인쇄와 유통에 주력했다.⁴ 저널리즘에 대한 간디의 접근은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에게 저널리즘은 돈벌이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대중을 섬기는 것이었다.

평화 저널리스트로서의 간디

간디는저널리즘을 인도 사회 혁신과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거의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저널리스트로 일했다. 저널리스트로서 간디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주제만을



다음 페이지에 계속

간디

6페이지에 이어서

기사거리로 택했다. 간디의 생각에 저널리즘의 주요 목표는 A. 대중 여론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 B. 대중에게 바람직한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것, C. 대중적인 쟁점을 담대하게 폭로하는 것이었다.

간디는 갈등의 증폭을 피하기 위해 저널리즘을 사용했다. 각각의 공동체가 이질성을 갖고 있는 인도 같은 나라에서 폭력은 피할 수 없다. 남아프리카와 인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디는 일방적인 친절만이 폭력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힌두 - 이슬람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두 집단 모두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간디의 언어는 간디가 가진 내면의 힘을 드러냈다. 1924년 5월 24일자 ‘영 인디아’의 전면을 할애하여 힌두- 이슬람 긴장과 그 원인, 해결책을 다룬 긴 기사를 썼던 것이 좋은 예다. 그 기사에서 간디는 스스로의 감정을 간결한 언어로 표현하면서, 두 집단 모두 폭력에 의지하고픈 욕망에 저항하고 상황 자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평화저널리즘은 갈등 집단 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중의 참여를 모색한다. 간디식 접근에 따르면, 대중의 참여는 집단간 폭동(communal riots)을 해결하는 데도 유용하다. 간디는 평화군을 결성하여 행동 강령을 미리 훈련 시킴으로써 잦은 갈등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리잔’(1936년 6월 18일자)에서, “얼마 전 나는 삶을 걸고 폭동, 특히 집단간 폭동과 맞설 평화군 결성을 제안했다. 이 평화군이 경찰과 군인까지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야망에 찬 생각으로 들릴 수 있다. 성취 여부는 불확실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비폭력 저항에 성공한다면, 그런 상황에 평화적으로 대응할 힘을 키울 수 있다.” 이는 간디가 평화 세우기를 위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뚜렷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디언 오피니언’에 대해 쓰면서 간디는, “나는 상업적인 관심을 유도했던 적

참고자료

1. Vilanilam v. John, Mass Communication in India: A Sociological Perspective, Sage, 05-Nov-2005.
2. Narayan, R.k, My days autobiography, Indian thought publication 2006
3. Iyenkar sudarshan, Gandhi was a great journalist, http://www.gujarat-global.com
4. Neelima, p, fantastic features, http://dhvani.co.in.
5. Murthy, D.V.R, Gandhian journalism is it relevant today, Kanishka publication, New Delhi.
6. Gandhi, M.K, Satyagarha in South Africa, Navajivan Publishing.

마하트마 간디: 세계 최초의 평화 저널리스트를 기념하며 2019년 8월 26-27일

학자이자 작가이며,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인 라즈모한 간디(Rajmohan) 박사와 함께 언론인으로서의 마하트마 간디의 역할과 영향, 언론인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탐구하고 기념하는 캔ساس 시티 행사에 초대합니다. PBS에서 방영된 바 있는 마하트마 간디에 관한 두 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신시아 루카스 (Cynthia Lukas)와 켈 컨스(Kell Kearns)가 주요 연사로 나섭니다. 이 행사는 간디의 150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개최됩니다.

대중 공개 행사는 두 가지로, 8월 27일(월)에 파크 대학교에서는 ‘간디의 선물’ 미주리 시사회가 개최됩니다. 시사회 후에는 영화 제작자인 신시아 루카스, 켈 컨스, 라즈모한 간디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8월 28일(화)에는 존슨 카운티 커뮤니티 컬리지 (Johnson County Community College) 주최로 마하트마 간디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라즈모한 간디를 모시고 ‘인도와 파키스탄간 평화세우기의 현재’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munity Engagement)의 대표인 론 존스(Ron Jones)는 평화세우기를 위한 공동체 참여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스는 지역사회 참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서 지역 사회의 필요와 열망을 배우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는 취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목소리와 관점을 모색했는지 강조했다.

이들은 라디오 제작을 통해 불우한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일회성 기사 취재를 위해 지역 사회에 단순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는 참여를 의미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기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려 들지 않는다. 여기에는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공동체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답해줄 수 있는 이해 관계자를 파악하는 단계가 포함되었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재진들은 해당 지역 사회에서 비공개로 공청회를 준비했다.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공청회를 시작했다.

“메트로 캔사스 시티가 여러분의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공동체가 공유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다는 확인을 직접 얻은 후에, 기자들은 방송국으로 돌아와서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로라 지글러는 자신들이 실질적인 평화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하는 일들이 평화저널리즘의 특징과 많은 부분 중복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찾게 될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준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론은 캔사스 통가녹시(Tonganoxie)의 지역 사회 참여 사례를 공유했다. 타이슨 푸즈(Tyson Foods)가 치킨 가공 공장



Vol. 8, No. 1

을 마을에 설립하는 계획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캔사스 주지사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은 이 계획을 지지했지만, 많은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다. 통가녹시 사람들은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공동체에 알리지 않았던 시의회에 직접 항의하며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KCUR의 기사는 문제의 복잡성을 반영한 다양한 관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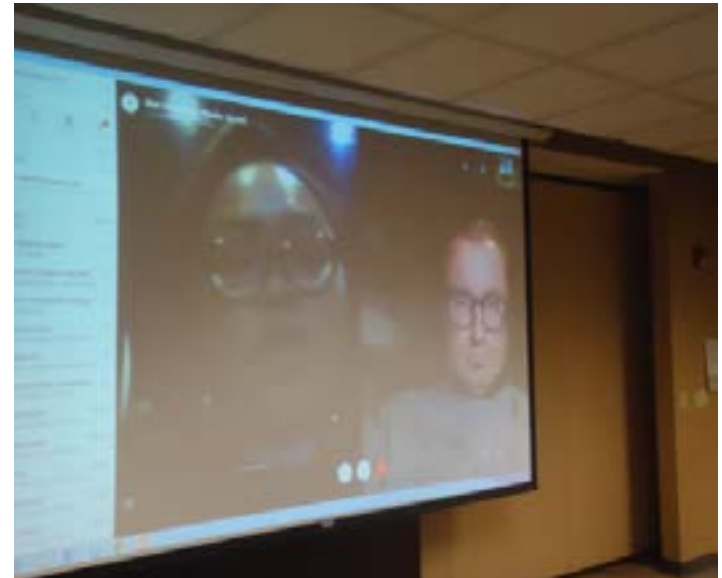
또 한 예는 캔사스시티 메트로 지역 국경에 중점을 둔 KCUR의 취재 사례다. 지역 사회 참여가 ‘경계를 넘어’라는 일련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경우다. 그들은 트루스트 애비뉴(캔사스 시티의 전통적인 흑백인 주거지역 구분선), 스테이트 라인, 와이언덜- 존슨 카운티 라인 (또 다른 인종 분리선) 및 미주리 강을 아우르는 국경 분리선을 재발견하려고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이는 평화저널리즘 정신을 기반으로 캔사스 시티의 지리적- 인종적 경계 때문에 이어져 온 고정 관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례다.

마지막 발표자였던 KKF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이사인 스펜서 그레이브스(Spencer Graves)는 KKF나 웹사이트를 통해 방영되었던 평화 이니셔티브와 피스웍(PeaceWorks Kansas City)이 주체했던 행사와 시위를 사례로 들었다.

라디오와 평화 세션은 그레이터 캔사스 시티 평화세우기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이었다. 이 컨퍼런스는 2018년 10월 25일~27일, 3일 동안 아빌라 대학교, 파크 대학교, 존슨 카운티 컬리지 주최로 개최되었다.

(왼쪽)- 로라 지글러가 KCUR 에서 제작한 이야기 ‘경계를 넘어’를 발표하고 있다.

(아래)- 카메룬 커뮤니티 미디어 네트워크의 제랄딘 포방 목사와 알렉스 보보다를 스카이프 연결한 모습.



9



2018 그레이터 캔사스 시티 평화세우기 컨퍼런스

2018 GKC 평화세우기 컨퍼런스: 라디오로 평화세우기

톰 패터슨 Tom Patterson

캔자스시티에서 2018년 10월 25일부터 개최된 평화세우기 컨퍼런스 둘째 날이었던 26일, 파크 대학교에 모인 참가자들은 평화세우기 도구로서 라디오의 역할에 주목했다. 글로벌 평화 저널리즘 센터의 스티븐 영블러드(Steven Youngblood) 센터장이 진행했던 라디오와 평화세우기에 관한 4번의 오후 세션에는 약 60여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는 카메룬의 부에(Buea)에 기반을 두고 시민 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알렉산더 보보다(Alexander Vojvoda)와 카메룬 미디어 네트워크의 대표이자 CBS 부에(Christian Broadcasting Services)의 관리자로 있는 카메룬 야운데(Yaounde)의 제랄딘 포방(Geraldine Fobang) 목사를 비엔나에서 스카이프 연결하여 진행됐다.

두 발표자는 카메룬의 앙글로폰 분쟁에 대한 보도에서 라디오가 효과적인 평화세우기 도구로 사용된 사례를 들며 ‘카메룬의 라디오와 평화’에 대해 발표했다. 역사적으로 카메룬은 서아프리카의 국가 중에서도 평화로운 나라였지만, 최근들어 변화가 시작됐다. 포방 목사는 현재 카메룬 남서부의 중심인 앙글로폰(Anglophone) 갈등의 기원에 대한 역사를 간략히 발표했다. 보보다는 혐오 발언을 반박할 방법과 미디어가 분열적이기보다 포괄적일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워크숍을 조직했던 경험을 나눴다. 현재 70명 이상의 회원을 둔 카메룬 커뮤니티 미디어 네트워크 (Cameroon Community Media Network)의 성장으로 연결된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포방 목사는 어떻게 CBS 라디오가 사람들을 평화를 위해 모으고 있는지 설명했다. 한 가지는 ‘평화의 바람’을 의미하는 ‘아이올(Eyole)’이라는 갈등 해결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카메룬 북서부 문제에 초점을 맞춘 ‘평화로운 사회를 향해’라는 프로그램이다. 또 ‘평화를 위한 청원’이라는 라디오 드라마도 있다. 보보다는 평화저널리즘과 같은 공동체 미디어는 사회 엘리트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대변인을 거치지 않고

톰 패터슨(Tom Patterson)은 존슨 카운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부교수이자 국제 교육 학부장으로 있다. 그는 알링턴의 텍사스 대학교에서 언어학으로 석사 학위를,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폴란드, 일본 및 싱가포르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 미디어 형태로서의 라디오가 평화세우기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순서를 맡았던 스티븐 영블러드는 동아프리카(우간다와 남수단)의 라디오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블러드는 평화 저널리즘의 10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발표를 시작했다.

- 1. 갈등 전후의 과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것
- 2. 분리보다는 연합시킬 것
- 3. 공식적인 선전을 거부할 것
- 4.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줄 것
- 5. 균형적일 것
- 6. 깊이있는 보도와 맥락을 제공할 것
- 7. 보도의 결과를 고려할 것
- 8. 선동적이지 않은 단어를 신중히 선택할 것
- 9. 선동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선택할 것
- 10. 고정관념, 신화, 선입견을 폭로할 것

영블러드는 우간다의 라디오 기자들을 위해 조직했던 워크숍에 이러한 평화저널리즘 요소들을 어떻게 포함시켰는지 이야기했다. 워크숍에 참가했던 기자들은 이 10가지 특성을 적용하여 우간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라디오 기사를 만들었다. 한 예로 평화로운 선거라는 개념을 공익 광고로 냈다. ‘우리 모두 이번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삶을 살고픈 꿈이 있습니다. 평화를 선택합시다!’ 이 공익광고는 우간다 전역에서 수천 번이 넘게 방송되었다.

영블러드는 2016년에 남수단 주바(Juba)에서 진행했던 평화 세미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 세미나는 전쟁이나 갈등으로 분열된 집단의 치유를 위한 화해 도구로서 라디오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우간다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수단 언론인들은 화해를 주제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영블러드는 그 기자들이 제작한 화해 라디오 제작물 몇 개를 컨퍼런스에서 공유했다. 동 아프리카의 라디오 방송국 중에는 평화저널리즘을 적용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곳이 많이 있다.

캔자스시티에 있는 공공 라디오 KCUR의 지역 리포터인 로라 지글러(Laura Ziegler)와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Com-

다음 페이지에 계속

알렉산드라 카네도 *Alexsandra Canedo*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뉴 이베로 - 아메리칸 저널리즘 재단(FNPI)이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제6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저널리즘 어워드 및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매년 이 행사에는 저널리즘, 문학, 예술, 과학, 기술, 혁신 및 문화를 중심으로 75개가 넘는 활동이 준비된다. 올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난 해에 가장 우수한 출판물로 선정된 저서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25여 개국의 연사, 패널 및 트레이너가 메델린에 모였다.

‘포토 저널리즘, 진실의 모색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 아래 콜롬비아 학자 헤르만 레이(Germ n Rey)가 진행을 맡고, 4명의 사진기자 스테판 페리(Stephen Ferry, 미국), 조앙 피나(Jo o Pina, 포르투갈), 나탈리아 보테로(Natalia Botero, 콜롬비아), 이바라 알바로(Ybarra lvaro, 스페인)가 토론에 참여했다.

포토 저널리즘이 갈등이 빚어낸 사회에서 진실을 찾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중점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이 포토 저널리스트들의 작업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갈등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이 라틴 아메리카 여러 지역의 폭력적인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다음은 패널 토론의 4가지 핵심 내용

이다.

1. 포토 저널리즘은 갈등에 인간미를 더한다.

역사적으로 민간인, 특히 소수 집단의 필요와 불만은 평화 협상에서 쉽게 밀려났고 평화 조약에서도 제외되곤 했다. 21세기에도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의 가슴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군사 동원과 무기에 연관시킨다. 나탈리아 보테로는 갈등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개인이 갈등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고 ‘갈등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아래로부터 접근하기 보다 위로부터 접근하여 갈등 현장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토론자들은 포토 저널리즘이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갈등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초점을 돌리게 하는 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2.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나탈리아 보테로는 ‘사진이 증인이다’라고 말한다. 갈등 이후 진실위원회가 소집되면,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위원회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된 증언에 주로 의존한다. 사진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고, 서로 모순이 되는 증언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테로는 사진에 ‘갈등의 피해자를 포착하려’ 노력하는 한편, 카메라 렌즈 뒤에서는 최대한 편견없이 다가가려고 노력한

알렉산드라 카네도(Alexsandra Canedo)는 *미주 국제 저널리스트 센터의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미주 지역 탐사보도 이니셔티브 (IRIA)의 산하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카네도는 다양한 소규모



보조금 사업 관리와, 워크숍 및 컨퍼런스 진행을 위한 실무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다고 말했다.

스티븐 페리(Stephen Ferry)는 평화 프로세스에서 포토 저널리즘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례인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따를만 한 모범 사례로 페루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들었다. 페루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페루 내전 이후에 집단 기억을 구축하는 멀티미디어 사진 프로젝트인 ‘유야나파크 Yuyanapaq’를 요청했다. 스티븐 페리는 국가가 진심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사진이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포토 저널리즘은 치유의 불씨가 된다.

패널들은 포토 저널리즘이 공동의 시각적 기억과 국가 의식을 형성하여, 공동체 치유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와 그 사회의 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이바라 알바로는 사진이 치유 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의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전과 평화 협정은 중요하지만, 폭력의 부재라는 부정적 평화를 형성할 뿐이다. 긍정적인 평화로 알려진 사회적 평화는 더 깊은 차원의 것이며, 진정한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

4. 포토 저널리스트는 책임이 더 크다.

포토 저널리스트는 최고 수준의 윤리

다음 페이지에 계속

www.park.edu/peacecenter

로잘린 아카 오바 *Rosaline Akah Obah*

카메룬 커뮤니티 미디어 네트워크(CCMN)와 북서부와 서부 카메룬 지부 평화 저널리스트들이 최근 바멘다(Bamenda)에서 모임을 가졌다. 언론인으로서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과 평화로운 삶과 공존을 위한 여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는 로잘린 오바 아카(Rosaline Obah Akah) 지부장이 협회 네트워크 회의 중에 주관했던 것이다.

이 전략 회의에서 네트워크 회원들은 카메룬의 앵글로폰 분쟁과 서부의 방글라인 분쟁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며 올해에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평화저널리즘 프로젝트 1년을 마치며 프로젝트 영향 분석도 완료했다. 네트워크는 또한 CCMN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평화저널리즘 원칙과 갈등 감수성에 기초한 보도를 통해 카메룬에서 지속되는 폭력의 단계적 축소에 기여하고 평화를 장려하는 방법에 일조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로잘린 지부장은 평화는 언제나 값지다는 것과 평화 저널리스트로서 평화가 우선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에 기여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잘린 지부장은 앵글로폰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인들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CCMN과 카메룬 장로교회(PCC), 세계를 위한 양식(BROT)의 협력 덕분에 회



카메룬 저널리스트들이 바멘다에 모여 평화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원들은 평화 저널리즘과 갈등 감수성에 기초한 보도 원칙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시간에 참가자들은 라디오, TV, 인쇄물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그동안 기울였던 평화세우기를 위한 노력에 대해 자기 평가 및 그룹 평가를 했다.

회원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에서의 활동이 사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뉴스 거리 고갈, 유명 도시(총파업) 및 산발적 총격사건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번 해에는 평화세우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더 많은 역량 강화 세미나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스빌더들과 CCMN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회원들은 또한 베테랑 기자 오메르 송웨(Omer

Songwe)에게 공감에 의한 취재 방법을 교육받았다. 전반적으로 CCMN 회원은 평화와 갈등 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있다.

로잘린 아카 오바(Rosaline Akah Obah)는 카메룬 북서부의 지역 소통 담당 PCC이다. 바멘다 라디오 방송국



(CBS) 매니저로 2016년에 부임했다.

로잘린은 미디어 컨설턴트이자 평화 저널리스트, 선거 트레이너, 디지털 인권 활동가다.

포토

10페이지에 이어서

의식을 고수하고 의도적인 이미지 변경을 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역사를 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다양한 진실을 조화시키고, 보다 집합적이고 일관된 기억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힘으로 갈등의 모든 당사자를 공정하게 조명해야 한다.

--국제 저널리스트 네트워크(International Journalists' Network, IJNet.org)에 게재되었던 글을 허락하에 게시한 기사입니다.

출처: <https://ijnet.org/en/story/photojournalism-has-role-constructing-peace-conflict-areas>

국제 저널리스트 네트워크(IJNet)는 전 세계의 전문 언론인 및 시민기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미디어 혁신, 뉴스 앱 및 도구, 교육 기회 및 전문가 조언을 제공

합니다. IJNet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7개 언어로 국제 저널리스트 센터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IJNet의 무료 주간 뉴스 레터를 구독하시거나, 트위터의 IJNet을 팔로우 혹은 페이스북의 IJNet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지난 10월에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패널들이 사회를 치우고 발전시키는 포토저널리즘의 역량에 대해 토론하고있다.



공동체 라디오가 콜롬비아의 평화를 밝히다

엠마 헤이덴라이히 Emma Heidenreich

울창한 콜롬비아 정글에 뻗뻗한 천막으로 머리 위를 가려 놓은 낡았지만 화려한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가 있다. 안에서는 한 남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한다. 남자는 근처 마을에서 활동하는 무장 단체가 두려워 익명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60년 동안 전쟁 중이다. 현대 역사상 가장 긴 전쟁 중 하나이며, 빈곤과 정치적 과소대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 교육 또는 토지권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 중반에 양극 정치성향을 가진 무장 민병대가 이 지역에서 형성됐다. 그 중 다수는 콜롬비아 최대 좌익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에 가담했고, 일부는 국가 보안군과 부패한 관계로 얽혀있는 극우 무장단체에 가담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콜롬비아는 공동체 라디오의 역사가 깊은 곳이다. 2016년 10월,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전 대통령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역사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미디어 개혁과 공동체 라디오 프로젝트가 '평화의 문화를 키워가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보급'에 힘쓰게 되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약 450개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무력 갈등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디오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터넷이나 전기가 없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값싸고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매체다. 비싸지 않을 뿐더러 배터리로도 작동되는 라디오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경로가 되었다.

콜롬비아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시작은 194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풀뿌리 평화 운동은 시골 농민과 가난한 가정에 대한 정부의 대우에 항의하고 지역에서의 불법 무장 단체의 활동을 비난하기 위해 라디오를 사용했다. 클레멘시아 로드리게즈(Clemencia Rodriguez)는 저서 '무장 분쟁에 반대하는 시민 미디어(Citizens' Media

엠마 헤이덴라이히(Emma Heidenreich)는 *저널리즘과 국제 관계학을 전공했다 (평화 갈등학)*. 엠마는 *트랜센드(TRANSCEND)의 평화 개발 네트워크 회원*이다.

그녀는 2016년 평화 협상의 열기가 한창일 때 콜롬비아에서 기자로 일했다. 현재 갈등과 갈등 이후 상황에서 풀뿌리 차원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Against Armed Conflict)'에서 콜롬비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풀뿌리 단체들을 연결하고, 무장 단체들이 젊은 남성들을 영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역 미디어 프로젝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방송국은 무장 단체와 종교 단체에 포섭되기도 했다. 라디오는 이처럼 강력한 매체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폭력

콜롬비아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과 풀뿌리 운동가들은 미디어 프로젝트가 폭력적인 이념에 맞서 지역 주민들을 단념시키려는 시도로 보는 무장 단체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화 협정 이후에는 국제 사회와 정부, 비정부기구가 지역 라디오 방송국 및 풀뿌리 언론인들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도 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여전히 언론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다. 콜롬비아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순위에서 180개국 중 130위를 차지했다. 특히, 무장 단체와 마약 범죄 조직간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농촌 지역의 저널리스트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0월의 평화 협정으로 인해

기록적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휴전 선언 및 철수가 있었다. 그러나 인민 해방군, 우익 준 군사 조직, 마약 범죄 조직처럼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비슷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다른 무장 단체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우익 준 군사 조직은 이례적인 무차별 살인, 언론인 협박 및 폭력 사태 보도에 대한 검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콜롬비아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 평화(Positive Peace)세우기와 연결될 수 있을까? 콜롬비아의 국내외 정책 입안자, NGO 및 시민들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들이 평화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유럽연합 및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커뮤니티 라디오 네트워크의 초기 사례로는 대중 문화 행동 (ACPO)이 있다. ACPO는 농촌 지역 사회를 교육하고 앞서 말한 근본적인 갈등 원인에 대해 공동체가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이러한 갈등들을 가장 잘 다룰지 이해하는 것이 전환기적 사법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콜롬비아 전역에 긍정적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은 대부분의 폭력이 발생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 언론인이 방문하기에는 위험하지만, 갈등의 원인과 그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콜롬비아 평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콜롬비아 언론인 연합(RSF) 및 평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SIPAZ)과 같은 조직은 지역 미디어 프로젝트를 서로 연결하고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의 미디어 환경은 고도로 독점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자금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콜롬비아 언론인 연합에 따르면 소규모 미디어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높고 대중적인 미디어 대기업과 그들의 정경계 엘리트와의 유대 관계에 맞서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해야하는 상

다음 페이지에 계속

위협 속의 글로벌 저널리스트, 평화저널리즘을 논하다

스티븐 영블러드 Steven Youngblood

(뉴멕시코 산타페)-지난 12월, 캔사스 시티에서 754마일 떨어진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열리는 '저널리즘 언더 파이어(JUF) 컨퍼런스' 연설을 위해 길을 떠났다. 이 짧은 여행이 말 그대로 나를 세계 구석 구석으로 데려 갈 것이라고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 컨퍼런스는 국제 언론인 48명(

알바니아부터 짐바브웨 참가자까지)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빛났다. 이 언론인들은 미 국무부의 에드워드 R. 머로우 펠로우(Edward R. Murrow Fellows) 자격으로 미국에 방문했다.

국제 언론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두 그룹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지난 12월, 미국 뉴멕시코에서 열린 '저널리스트 언더 파이어' 컨퍼런스 강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

콜롬비아 12페이지에 이어서

항이다.

2018년 8월 대선에서, 극우 민주중앙당의 이반 두케(Ivan Duque)후보가 산토스 전 대통령을 이겼다. 두케는 평화 협정과 전환기적 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에 반대하며, 평화협정 재협상과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를 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역설적이게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침묵을 지켰던 것이 바로 피해자의 목소리였다. 평화 협정에 긍정적인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 대부분은 갈등으로 가장 황폐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두케의 캠페인은 도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많은 농촌 유권자들은 두크의 정치적 목표에 관한 정보나 자신들의 우려를 전달할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평화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성이 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교육 및 토크백 프로그램은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요한 플랫폼이다. 지역의 정보

소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정치 및 정의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가지며, 두케 정부에 책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이러한 지역 라디오 방송국은 대부분의 폭력이 발생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외부 언론인이 방문하기에는 위험하지만 갈등의 원인과 그 영향

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에서 콜롬비아 평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반드시 복잡한 과정일 필요는 없다. 콜롬비아 지역 사회는 이미 기초를 닦고 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인정과 응원뿐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 변화를 만든다는 인정과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혹독한 상황으로 보내는 응원의 손길이면 충분하다.



--원문 출처: <http://visionofhumanity.org/positive-peace/colombias-rural-radio-stations-key-peace/>

혹은 <https://www.transcend.org/tms/>

저널리스트언더파이어

13페이지에 이어서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풍부한 경험이었다. 나는 감사하게도 두 번의 국제 언론인들과의 교류 세션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았다. 하나는 가나, 코트 디부아르, 카메룬, 나이지리아의 언론인들과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패널 토의였고, 다른 하나는 카메룬, 니제르, 나이지리아의 기자들과의 시민 교류 서클이었다. 토의는 크게 가짜 뉴스와 정부 선전에 관한 것이었다. 소셜 미디어라는 양날의 검, 테러 보도의 과제, 각 국가에서의 언론 자유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침 식사 시간과 점심 시간 동안 참가자들과 그들의 경력과 삶에 대한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아프리카, 중동 및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러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평화저널리즘 워크숍이나 프로젝트를 개최하고 싶다면 나에게 초청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나는 약 50명의 활발한 그룹과 이주민에 대한 언론 취재를 논의하는 분과토의에서 평화저널리즘이 어떻게 취재 개선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우선 유럽과 터키 언론의 시리아 난민에 대한 피상적이고 부정적인 묘사와 고정 관념에 대해 간략히 다룬 후, 최근 미국 언론이 '카라반 위기'를 다룬 취재에 그와 동일한 특징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짚었다.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카라반 난민에 대한 두려움이 정치인들에 의해 과장되었고, 부정적인 언어 또한 긍정적인 언어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민자 히스테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 매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서 평화저널리즘은 이주민들을 인도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저널리즘은 미디어에서 줄곧 보여주는 가혹하고 비판적인 언어를 거부해야 한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PR)의 스콧 사이먼(Scott Simon)이 썼던 국경에서 헤어져야 했던 가족에 관한 훌륭한 기사와 평화저널리즘 형식의 기사를 몇 개 소개했다. (<https://www.npr.org/2018/08/11/637780548/how-separation-affected-a-migrant-family>)

토론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난해한 질문을 던졌다. 대중들이 평화저널리즘에 관심을 보일까? (사실, 대중들은 평화저널리즘과 해결책을 다룬 기사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 소비자들을 '버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로 시작할 수 있다)

내 발표를 제외하고도, 저널리즘 언더 파이어에서는 폴리처 상 수상자인 워싱턴포스트의 다나 프리스트(Dana Priest)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돈 바틀레티(Don Bartlett) 등 저명한 연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프리스트는 글로벌 센서십(global censorship)에 대해 이야기했다. 흥미롭게도 프리스트는 페이스북의 뉴스 추천 방식은 페이스북이 생각하기에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뉴스만 제공함으로써 극단적인 견해를 조장하는 '새로운 종류의 검열'이라고 말했다. 포토 저널리스트 바틀레티는 최근의 이주민 카라반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미국-멕시코 국경과 온두라스 대한 사진 에세이를 보여주었다. 바틀레티의 사진은 분노와 좌절감과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의 올가 유르코바(Olga Yurkova)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짜뉴스, 코소보의 아르바나 세어(Arbana Xhare)가 언론인에 대한 위협, 안젤라 코체르가(Angela Kocherga)와 알프레도 코르차도(Alfredo Corchado)가 미국-멕시코 국경 취재에 대해, 니카홍 코우사르(Nikahong Kowsar)가 이란의 정치 풍자 만화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했고, 뉴 멕시코의 여러 언론인들이 언론인으로서의 도전 과제와 두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저널리즘 언더 파이어(Journalism Under Fire)는 산타페 국제 관계 협의회(the Santa Fe Council on International Relations)의 샌디 캠벨 (Sandy Campbell) 사무국장장 스텝들이 조직한 컨퍼런스다. JUF의 발표자였던 워싱턴포스트의 제이슨 레자이언(Jason Rezaian)은 컨퍼런스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그는 '오늘날 자유로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과제 중 하나'라며 컨퍼런스가 시의적절했다고 썼다.

개인적으로 라자이언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스티븐 영블러드(Steven Youngblood)는 피스저널리스트의 편집장이며, 평화저널리즘의 원칙과 실제(Peace Journalism Principles and Practices)의 저자로, 미국 미주리주 파크빌에 있는 파크 대학교에서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의 센터장이자 부교수로 일하고 있다.

평화저널리즘
발표 중 (왼쪽):

JUF 컨퍼런스 중
아프리카
저널리스트 패널
세션에서(오른쪽)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위치한 평화로운 유엔 평화대학캠퍼스 전경(왼쪽)

지난 봄 졸업생들의 환한 모습

유엔 평화대학에서 미디어와 평화 석사 과정을 시작한다

사우마바 미트라 Saumava Mitra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는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갈등전환의 수단이자 포용성을 촉구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해야만 한다. 최근들어 평화 프로세스 자체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디어와 관련된 실천과 접근을 평화세우기 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세우기라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학생과 활동가들을 교육시키는 고등교육 기관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피스저널리트 매거진과 같은 세계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학과 평화갈등학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주요한 장애물로 남아있다.

미래의 피스빌더들을 위한 평화갈등학과 언론학 분야의 연구와 실제에 대한 간학문적 지식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엔 평화 대학(UPeace)은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와 평화 석사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가 설립한 유엔 평화 대학의 이번 프로그램은 2019년 8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언론정보 관점에서 평화세우기와 갈등전환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었다. 국제 구호 분야나 평화세우기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의 정보 관련 중재에 전문성을 키우고자하는 활동가 또는 미래

의 활동가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본 과정의 학생들은 현재 유피스 평화갈등학 전공에서 제공하는 평화갈등학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된다. 이외에도 미디어와 평화 석사 과정은 평화세우기와 갈등전환과 관련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언론정보학의 다양한 이론, 실천, 연구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섯 개의 핵심 과목 위주로 운영된다.

이 핵심 과목들은 현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미디어 국제정치경제, 미디어와 관련된 비판문화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political communication), 국제 미디어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현재 프로그램 지원과정이 시작된 상태다. 유엔 총회의 유엔 평화대학 분과 협약국(현재 41개국)의 학생들에게는 부분 장학금이 주어지며, 소수의 전액장학금도 지원 가능하다. 더 많은 정보는 www.upeace.org를 참고하면 된다.

코스타리카 산호세 수도 근처의 300헥타르에 달하는 아름다운 자연에 위치한 유엔 평화 대학은 국제법과 환경학 뿐만 아니라 평화갈등학 분야에 초점을 둔 국제 고등교육 기관이다.

유엔 평화 대학은 1980년 창립된 이래

평화갈등학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언론학과 평화갈등학 사이의 간학문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미디어와 평화 석사과정은 본 대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간학문적 연구와 교수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것이며, 최근 재학생들이 특별과정으로 수료하고 있는 미디어와 평화갈등 과정의 범위를 확장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사우마바 미트라 (Saumava Mitra)가 유엔 평화대학의 새로운 미디어와 평화 석사과정을 이끌게 된다. 사우마바는 캐나다의 웨스트 온타리오 대학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강의 뿐만 아니라, 분쟁 중 전쟁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the PEACE JOURNALIST

나이지리아, 소셜미디어와 폭력을 우려하다

이노센트 이로아가나치 Innocent Iroaganachi

2019년 나이지리아 총선은 한 때 연기되었다가 마침내 2월 24일 일요일에 치뤄졌다. 총선은 이전 선거 당시 소셜미디어 상에서 실제로 자행되었던 폭력뿐만 아니라 인지되었던 폭력에도 반대하여 이루어졌다.

2015년 나이지리아 총선 전, '나이지리아가 분열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여러 예측이 난무했다. 이런 예측들은 대부분 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 상에서 극도로 과열되었던 논쟁 양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주도권을 지닌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은 소셜미디어 상의 이러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나이지리아는 총선을 치르게 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2014년에 총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진 연합정당인 전진보당(APC)이 당시 인민민주당(PDP)이 이끌고 있던 정부 인사들과 기관을 폄하하는 콘텐츠 확산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대적인 방식으로



이노센트 이로아가나치(Innocent Iroaganachi)는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평화개발학 박사 과정에 있으며, 서아프리카 카톨릭 연구소(the Catholic Institute of West Africa, CIWA)의 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세계 커뮤니케이션 카톨릭 협회(the World Catholic Association of Communication, SIGNIS)와 팩스 크리스티 인터네셔널의 영 피스 저널리스트(Young Peace Journalists of Pax Christi International) 회원이자 아산테 아프리카 재단 블로그 작가이며, 사회적 인식-어드보카시-윤리 센터(Centre for Social Awareness, Advocacy and Ethics, CSAAE)의 기자로 있다.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전진보당은 당의에 맞는 콘텐츠로 유권자에 다가가는 방법에서 '한수 위'였을 뿐, 콘텐츠가 폭력을 피는지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진보당이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를 퍼뜨리는데 전념하고 있는 동안, 인민민주당은 전진보당을 설전에 끌어들이기 위해 전통적인 매체, 즉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을 사용하는데 집중했다.

정치색에 따라 분열되었던 4년이 지난 후에도, 나이지리아는 2019년 선거에서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제는 한 정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타 정당들도 경쟁자라고 여겨지는 당들에 대한 경멸적, 공격적, 선동적 콘텐츠를 팔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습득했다. 실제로 2018년 1월 18일자 리더십 뉴스페이퍼(Leadership Newspaper) 인터넷 판에는 '인민민주당이 전진보당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전쟁을 개시하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나이지리아 시민의 두려움은 소셜미디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당들과 그 지지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파하는 직간접적인 폭력 콘텐츠들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비시민적 행위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 뉴스 콘텐츠들에 달리는 댓글에서 명백히 발견된다. 대부분의 댓글들은 분열의 최대 요인인 종교와 민족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출현 이전부터 오랫동안 나이지리아 정치인들이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왔던 요소들이다.

소셜미디어의 출현 이전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종교와 민족에 기반한 정치적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드물었고 쉽게 규제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러한 논쟁이 증폭되었고, 지식층 혹은 비지식층 유권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부 젊은 유권자들은 부정적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인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외에도, 유권자들은 다른 유권자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아부자 워크숍, 언론과 경찰을 하나로 모으다

서아프리카 미디어 재단(Media Foundation for West Africa, mfw.org)에 따르면 2월 6 - 8일, 나이지리아 아부자(Abuja)에서 열린 워크숍에 전문언론인과 편집자, 경찰 관계자들이 모여 2월 말에 있을 나이지리아 총선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서아프리카 미디어 재단(MFWA), 국제 미디어학회(IMS), 나이지리아 언론 협회(NUJ), 나이지리아 경찰은 "2019년 선거 기간과 그 이후에 경찰과 언론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서아프리카 미디어 재단이 보도했다.



서아프리카 미디어 재단(MFWA)에 따르면, 워크숍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반 대중에게 소셜 미디어와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알리는 교육의 필요성, 경찰이 그들의 운영 절차를 언론과 공유하고 정기적인 브리핑을 갖는 것, 선거에 앞서 언론과 경찰 사이에 '신뢰 구축' 세션을 가질 것, 마지막으로 양측의 과한 의욕과 고압적 태도를 견제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http://www.mfw.org/issues-in-focus/media-stakeholders-police-commit-to-ensure-improved-police-media-relations-ahead-of-2019-nigeria-elections/>

을 비난하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류의 비시민성을 예측하여, 나이지리아 국회는 얼마 전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고 미디어 위원회 개설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에 따른 대대적인 반대 시위로 발의안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나이지리아 유권자들이 알아야하는 한 가지는 정당을 떠나서 대부분의 나이지리아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벌이는 직간접적인 다툼과 모욕을 정치적 '성공'으로 깊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이지리아 유권자들은 평화를 신중하게 지향하는 방식으로 선거와 정치 이슈에 대한 관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스티브 영블러드는 '평화와 선거 저널리즘을 연결하기(2012, p.14)'라는 글에서 선거 절차와 관련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할 때, 피해야 하거나 지켜야 할 여러 팁을 제시했다. 나이지리아 정치인들이 적용했던 10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민주당과 전진보당 사이의 선거라고 보일 만 한 코멘트를 피해라. 대신, 신뢰할 만한 후보자와 이념을 가진 다른 정당들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코멘트를 이용하자.
2. 논쟁을 단순히 여론조사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대신, 우리 코멘트가 대중들이 인지하고,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플랫폼과 성명서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
3. 후보자들이 본인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후보자들 주장의 진실성과 논리성, 그리고 그들의 배경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4. 후보자들의 선동적, 분열적, 또는 폭

력적인 주장들을 참조하지 말자. 대신, 다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 선동적인 표현을 없애는 방식으로 그런 주장들을 수정해 본다. 둘, 그러한 주장들을 게재하거나 방송에서 다루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비판을 제공한다.

5. 인종차별처럼 사회의 종파주의와 분열을 도모하는 코멘트나 기사들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을 피해라. 만약 이러한 코멘트들이 꼭 방송에서 다뤄져야 된다면, 후보자가 유권자를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논평이 덧붙여져야 한다. 대신, 우리의 코멘트는 후보자가 공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지역 사회를 단합시키는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는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6. 후보자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욕설도 여기에 포함한다. 대신, 우리의 코멘트는 이슈에 대해 논하면서 후보자들이 하는 말과 정확한 언어 사용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선거를 후보자들 개인간의 충돌로 묘사하는 코멘트는 피해라. 대신, 학교, 의료복지, 도로, 안보, 주거, 실업률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에 집중해야 한다.

8. 불균형한 이야기들은 피한다. 대신, 주요 정당 또는 정당 지지자들의 코멘트들을 포함하여 각각의 이야기들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한다. 후보자나 선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포함시킴으로써 균형을 잡을 수 있다.

9. 후보자들이 그들의 선전을 퍼뜨리는데 당신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요점을 이해하고 밝힌다. 후보자들의 주장을 방송으로 알린다면, 언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포함시켜야 한다.

10. 정치인들 또는 전문가들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을 피한다. 대신, 후보자들과 선거과정에 대한 일반 시민과 그들의 염려와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이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모욕당하길 바라지 않는다. 또한 평화

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가상의 언어전쟁을 조장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

언론은 우리가 관점을 공유할 때 유권자로서의 현명하게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폭력을 중단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게 할 책임이 있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이러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이지리아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고자 헌신하는 나이지리아인을 찾고 있는 우리 또한 모두 나이지리아인이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평화유지
에이전트
Journalism: A
Peacekeeping
Agent



저자: Yasemin Giritli Inceoglu,
Tirse Erbaysal Filibeli
출판사: Brill Publishing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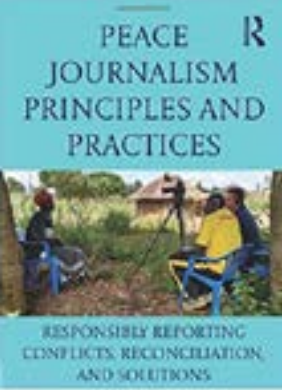
서문- 제이크 린치

1. Media as Conflict Environment: Peace Journalism and the De-escalation of Strife-Samuel Peleg
2. Providing a "New Road Map" to the Obstacles of Peace Journalism in Turkey-Yasemin Giritli Inceoglu and Tirse Erbaysal Filibeli
3. It Heals When It Reveals: Building an Alliance between Peace Journalism and Investigative Journalism-Rukhsana Aslam
4. Re-thinking Peace Journalism Theory with Feminist News Criticism and Ethics-Sevda Alankuş
5. What Do You See in Time of Conflict? Threats and Terrorists Who Must Be Killed, or Human Beings in Need?-Annabel McGoldrick
6. Taliban Conflict in Pakistan: Analysis through the Prism of Peace Journalism-Shabbir Hussain
7. Practicing Peace Journalism in a Time of Declining Media Freedoms-Ece Algan
8. Fear and Propaganda: a Case for Peace Journalism-Maria Ahmad, Aradhana Sharma, and Marianne Perez de Fransius
9. Journalism in a Time of Fear: How Media and Governments Benefit from Using Fear-Meah Mostafiz
10. Resolving Conflicts through "Peace" Photography- Tirse Erbaysal Filibeli

후기- 스티븐 영블러드

아프리카
평화저널리즘
Africa
Peace Jour-

저자: Dr. Fredrick Ogenga
출판사: Routledge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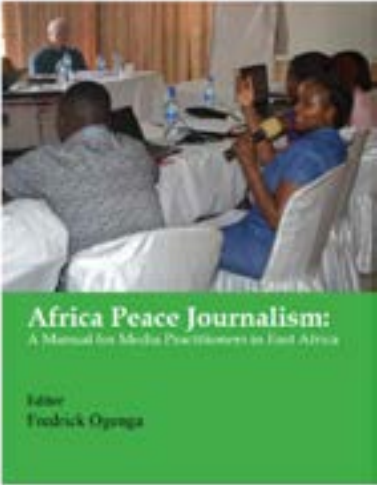
평화저널리즘
원리와 실제
Peace Journal-
ism Principles
and Practices

저자:Steven Youngblood
출판사: Routledge Publishing/
Taylor and Francis Books

목차

추천사- 제이크 린치

1. The Peace Journalism approach
2. How traditional media inflame and encourage conflict
3. Propaganda and the peace journalism approach
- 4-. Reporting civic unrest and the need for peace journalism
5. Peace journalism: The academic and practical debate
6. Measuring peace and peace journalism
7. Peace journalism, stereotypes, and racial narratives
8. Crime, mass shootings, and the peace journalism approach
9. PJ: Debunking traditional media narratives about terrorism
10. Media narratives of the vulnerable-Immigrants, IDP's Refugees
11. Peace and Electoral Journalism and media narratives
12. Peace journalism as a tool for reconciliation
13. PJ as a tool for development
14. Peace Journalism: Obstacles and Prospects



폭력적인 단어를 벗어내면 평화가 가능하다

루이스 디귀드Lewis Diuguid

평화 운동을 취재하면서 나는 완전히 기자가 됐다.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 시민권 운동을 주도하면서 남긴 영혼을 물리는 설교도 한 몫 했다. 그의 말과 연설은 미국과 전세계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내가 젊은 시절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교 (Missouri-Columbia) 언론학과에서, 1970년 중반에는 성 루이스 센티넬(St. Louis Sentinel)에서, 1970년대 후반에는 캔자스 시티 스타(Kansas City Star)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마틴 루터 킹 박사를 기리는 국경일을 지정하자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캔자스 시티 스타에서 39년이 넘게 (1977년 5월 ~ 2016년 10월)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기자, 사진가, 편집자, 칼럼니스트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프레드 셔틀스워스(Fred Shuttlesworth) 목사, 제임스 로슨(James Lawson) 목사, 조셉 로우리 (Joseph Lowery) 목사, 존 스웬리 (John Swomley) 목사, 남아프리카의 반 아파르트헤이트 운동가였던 데스몬드 투투 (Desmond Tutu) 주교와 같이 비폭력과 불복종으로 헌신하던 중요한 인물들과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는 특권을 얻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평화 운동,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및 다른 곳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미국 주도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취재를 하는 것이 언론인이자 작가로서 내 글과 경력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에, 평화를 위한 노력은 미국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총기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집중되었다. 나는 그런 총기 사태가 어떻게 불법 마약 거래, 범죄 발생, 학교에서 교도소로 이어진 '파이프라인'(School-to-Prison Pipeline), 교도소 산업(Prison industrial complex)을 부추기는지에

대한 기사를 썼다. 캔자스 시티와 같은 도시 공동체는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들로 점점 더 비극에 휩싸였다.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숙모, 삼촌 혹은 아이들까지 죽거나, 부상 당하거나 또는 감금됐다.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웃들은 피폐해졌고, 유례 없는 수의 흑인과 유색인들이 트라우마를 겪었다. 이 '희생자'들은 경찰 사이렌 소리와, 합합 아티스트들이 '빈민가의 새(ghetto birtds)'라고 부르는 경찰 헬리콥터 소리, 그리고 도시 공동체에 대한 전면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법과 질서'를 외치는 정치인들과 대중들의 소리 외에는 들은 일이 없다.

현 미국의 많은 도심지를 보자. 전쟁이 일어난 듯한 풍경에, 사람들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인종과 관계없이 달아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달아났다. 달리 방법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차별은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뉴스 매체는 불법 행위나 그 원인에 대해 주로 경찰, 검찰관 및 기타 법 집행관들에게 설명을 구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저널리즘은 공격적인 언어, 사람들 간의 논쟁과 갈등을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싸움', '전투', '폭력' 및 '전쟁'이라는 단어들이다. 우리는 논쟁이나 갈등, 공격적인 언어에 모티브와 이야기를 붙이고, 그렇게 쓰인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라며 칭찬 받는다. 이러한 선동적인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기자로서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신경쓰지 않으면 경력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 운동은 어린이와 성인들에게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을 장려하기 위해서 뉴스 매체와 기자들이 더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시민권을 위한 싸움(fight)'이나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한 투쟁(battle)'이라는 문구 대신 '시민권을 위한 노력(struggle)',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행동(ongoing work)'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다시 써야 한다.

25년 전 보다 지금, 물리적 폭력 또한 폭력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였다는 것을 더 확실히 느낀다. 가정 폭력이든,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싸움이나 총격전이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표현할 언어가 없을 때 폭력을 선택한다. 즉, 우리 사회가 그러한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소통 도구를 대안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폭력성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사람들은 인류의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산업의 이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지 못한다. 여기에는 경찰 뿐만 아니라, 법원, 교도소, 형벌제도, 의료 시설 및 의료 분야 종사자, 사업주, 정부, 무기 제조업체, 스포츠,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포함된다. 폭력은 유력한 사업이지만 평화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책과 학교 교육을 통해 폭력의 언어를 배운다.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1812년 전쟁, 미국-원주민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과 걸프전쟁이 필요에 의한 선이었다고 배운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명분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끝없는 전쟁이나 중동과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의 미군 개입 보다 더 미심쩍다고 배운다. 그런 전쟁들은 미국의 작가, 편집자, 사진 작가 및 예술가들이 자라난 전형적인 미국 내러티브에 부합

다음 페이지에 계속

루이스 W. 디귀드(Lewis W. Diuguid)는 저자이자 강사, 다양성 퍼실리테이터, 다문화 교육 협회의 정치 행동 위원회 위원장(the Political Ac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이다.



디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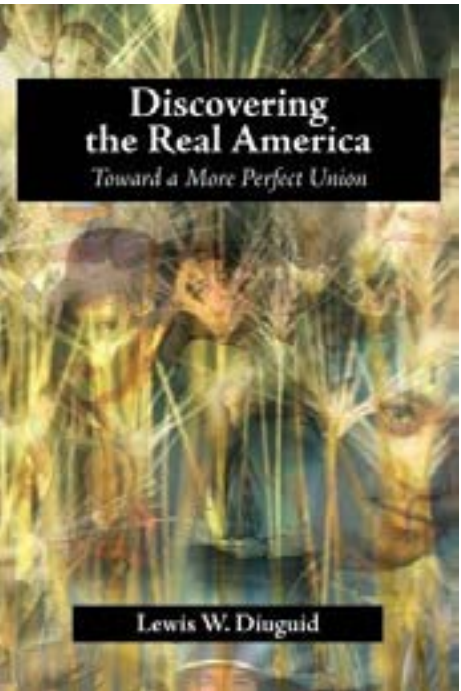
19페이지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뉴스 매체 또한 그런 전쟁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기자에게는 미국 군대 취재에 파견되거나, 비슷하게는 경찰의 현장 급습이나 마약 단속을 취재하고 기사를 쓸 기회를 갖는 것이 경력에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편집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매우 좋아하고 대중들 또한 그 이야기들을 읽고 보는 것을 좋아한다. 폭력에 대한 영웅적인 언어로 쓴 이야기들은 미국적 내러티브에 잘 들어 맞는다.

1990년대 중반의 평화운동들을 보며 폭력을 조장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을 설명하는데 더 나은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캔자스 시티 지역의 여러 조직과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보관했다.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Positive Family Relationships), 아메리칸 프렌즈 서비스 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디어 와이즈(Media-Wise), 가정 폭력 네트워크(Domestic Violence Network), 스탑 바이올런스 연합(Stop Violence Coalition), 크레센트 평화 사회(Crescent Peace Society), 범죄 반대 특별 그룹(AdHoc Group Against Crime), 피스워크(PeaceWorks), 전국 청소년 정보 네트워크(the National Youth Information Network), 지역사회 협동을 위한 연합(the Coalition for Community Collaboration), YMCA 피스잼(YMCA Peace Jam), 비폭력 평화와 종교 간 평화 연합(the Nonviolent Peaceforce and the Interfaith Peace Alliance)이다. 이들 중 심지어 어떤 단체는 정규 보고서에 '불렛포인트(bullet point, 항목 앞에 사용하는 그래픽 문자로 불렛은 '총알'이라는 의미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저널리즘의 주류에 있던 이 단체들은 공식 보고서나 기자 회견문에서 불렛포인트를 평화 심볼이나 꽃으로 바꾸어 사용했다. 그렇다, 나는 내가 출판하려는 책에 실렸던 이야기에 나타난 변화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단체들은 비폭력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여겨지기 이전부터 교



다. 이 단체들과 이들 단체 활동가들은 9.11 공격 이후 거리로 나가 300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파괴하고, 워싱턴 미 국방부 건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공격에 대응할 방법이 군사적 반격만이 아니라고 대중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평화 단체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미국 주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캔자스 시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시위를 주도했다. 그들은 비폭력 저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창조적인 시위 문구를 만들었지만 초기에는 대중의 분노를 샀다.

나는 그러한 평화적인 노력에 대해 계속해서 글을 썼던 몇 안되는 언론인 중 하나였다. 내가 비폭력에 대한 칼럼을 쓰며 사람들에게 받았던 수천 개의 비슷한 피드백 중 두 가지를 여기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나의 저서 '진짜 미국을 발견하다 : 더 완벽한 연합을 향하여 (Discovering the Real America: Toward a More Perfect Union)'에 더 많은 피드백이 실려있다.

이메일 : 2002년 2월 15일

"미군이 석기시대로 퇴보한 중동에서 자국민들은 물론 미국인들도 죽인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제거했다. 우리의 다음 계획은 또 다른 석기시대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로 가서 수백만 국민을 죽인 군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디귀드가 글에서 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결국 150년 전 미국에서 약 400개의 '석기 시대 부족' 인디언들이 서로 끊임 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미국인이 했던 일을 미군도 똑같이 했던 것 뿐이다. 전쟁 중에 매일 피를 흘렸던 이들은 언덕 위에서 희생되었다. 수천년 동안 이곳에 살았지만, 화살이나 토기, 바구니 짜기 외에 아무 진보도 발전도 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술에 '영혼(spirit)'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후퇴한 원주민들은 1941년에 일본이나 독일의 무력 공격에 대항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나?

연기 신호, 기도 및 협상으로 위협하여 일본놈들을 진주만에서 쫓아냈거나 독일 군대가 유럽과 러시아를 장악하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

덜덜어진 디귀드의 사고 흐름과 매우 순진한 근본주의자적 성향은 구시대적으로 살고 있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아주 잘 맞는다.

루이스(John Lewis, 미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인 민주당 의원)가 부시나 블레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하는 글을 써야 한다면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 디귀드의 대통령 빌 클린턴이 '몹(piece)'에 대한 상(peace prize와 발음이 같다)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결국, 존 루이스나 빌 클린턴 대통령보다 더 많은 '몹(pieces)'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누가 웃음거리냐는 말이다.

이메일 : 2002년 3월 29일

당신네 흑인들(spear chucks) 중 한 명이 내게 자극을 준 것이 참 오랜만이네. 너희 원숭이들은 도대체 배우질 않는 것 같아? 3년 전에 미주리주의 114개의 카운티 중에 101개의 카운티가 컨실드 캐리(concealed carry, 총기가 드러나지 않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행위)를 통과시켰어. 당신이 그런 정보를 찾아볼 정도로 충분히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확인 해 보길. 코걸이를 한 당신의 형제들이 있는 도심지의 10개 카운티가 바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 곳이었지.캔자스 시티와 세인트 루이스의 외곽 지역들에서조차 통과했던 것인데...

다음 페이지에 계속

루이스, 부시 대통령이 권력의 자리에서 NRA(전미총기협회)와 손잡고 있는 앞으로의 7년은 아주 긴 시간이 될거야. 헤헤헤. 당신 주주(juju: 서아프리카의 전통적 주술 또는 어떤 기운이 있다고 믿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지도 않았지? NRA와 우리 백인들은 전 미주리 주지사 밥 홀든(Bob Holden)이 앞으로 발의될 법안을 거부할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컨실드 캐리를 아주 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거고, 원숭이들이 나무 위에서 뭘 생각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지. 봐봐 루이스! 미주리주에는 550만명의 시민이 있는데, 당신은 캔자스 시티와 세인트 루이스 지역에서 얼마나 지지를 얻고 있지? 그 중 백만 정도는 되나? 루이스, 당신 원숭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처참히 외면당할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지지. 그냥 몸뚱이나 굶으면서 바나나 먹는게 낫겠네.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검둥이 동네에 '치트린(Chittlin) 씹는 사람들 연합하자!'라고 쓴 표시판 말이야. 거대한 악마 사탄, NRA를 부숴야죠. 루이스, 근데 이게 지는 싸움이라는 건 알아야 해. NRA는 컴퓨터와 총을 가진 백인이 운영하는 아주 잘 조직된 기계고, 미국 대통령의 오른손이지! 나무에서 내려온 원숭이 무리들이 이런 확률없는 싸움에서 이룰 수 있는게 뭐지? 이제 그냥 뼈다귀

나 수박 먹으러 가라고. 더 이상 스스로를 궁지에 몰지 말아. 미국은 클린턴주의자들 보다 훨씬 제정신인 사람들 손에 있어. 당신네들만 쓸쓸하게 총기 규제에 매달리고 있지. 그 이슈에 대해 열마든지 칼럼을 써봐. 러쉬 림바흐(Rush Limbaugh, 미국 내 진보좌파를 공격해 온 라디오토크쇼 진행자)가 예측한 것 처럼 당신은 바로 웃음거리가 될거야. 앞으로의 7년은 당신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 루이스. NRA

모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지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아, 사라 브래디(Sarah Brady)가 유령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 새로운 하루가 열리네, 루이스. 당신은 한 순간도 달갑지 않겠지.

이 두 사례와 다른 엄청난 양의

이메일, 음성 메일, 편지 및 팩스로 온 사례들에서 사람들이 폭력의 언어를 얼마나 즐거워 하는지, 그들이 신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누구에게든지 얼마나 직접적으로 분노를 분출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요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종차별을 폭력적 언어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학교, 대학, 언론 매체, 정부 및 지역 사회에서 사용되는 글과 언어에서 무기와 폭력이 줄어들 때만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변화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게 날을 세우지 않고 이야기해야 한다.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소망은 사람들이 다름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 총기 사고가 줄어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 소지와 총기 휴대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의 자원을 확장하고, 모든 생명을 위한 깨끗한 물을 보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고, 빈곤은 줄어들고 전쟁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 지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슈마기 초킬리(Shmagi Chokheli)

소련의 해체 이후 조지아는 심각한 무력 인종 갈등과 두 번의 분리주의 전쟁을 겪었다. 현재 압하지아(Abkhazia)와 남오세티아(South Ossetia)지역은 얼어붙은 갈등으로 인해 영구적인 안보 위협으로 이미 분리된 지역을 포함한 조지아의 안전, 평화, 경제 및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2008년 남오세티아에서 벌어진 러시아와 조지아 전쟁은 냉전체제가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조지아의 갈등 해결 문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딜레마다. 조지아에서 잘 적용된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평화저널리즘이 국가를 평화와 갈등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여겨질 수 있다.

평화저널리즘은 군국주의 선전에 맞설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폭력 갈등의 희생물인 기존 저널리즘에 대한 대안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조지아의 무력 분쟁 기간 동안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갈등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혐오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됐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현상은 특히 분리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갈등의 양측에 대한 대중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의를 추구하는 평화저널리즘은 화해 과정 및 갈등 해결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평화저널리즘이 정확하게 적용된다면 평화와 안정의 개념을 고취시키고, 지역 사회의 태도와 행동 패턴을 변화시켜 갈등 당사자들에게 자신감과 신뢰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조지아 민간 개발을 위한 NGO 국제 네트워크(Georgian NGO Inter-

2008년부터 슈마기 초킬리(Shmagi Chokheli)는 지역 NGO 의장으로 서 '민간 개발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INCD)'에서 국가의 민주적 발전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평화와 발전을 위한 청년 참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지아 평화저널리즘 교육 수료자들과 함께

national network for Civil Development, INCD)가 개발하고 2018년 8월 1일에 캐나다 지역 이니셔티브 재단(Canada Fund for Local Initiatives, CFLI) 지원을 받아 운영된 '조지아 평화를 위한 여성 저널리즘'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였다.

CFLI는 앙카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관리하는 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조지아의 현지 파트너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가시적이며 영향력이 크고 결과 지향적인 커뮤니티 차원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갈등 예방, 해결, 회복 단계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도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평화세우기 프로세스의 효과 또한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평화저널리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강점이었다. 여성들이 평화세우기에 참여하면 이러한 활동이 더욱 효과적이어진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갈등에 연관된 대중들과 대면할 때 한층 생산적이다. 남성들은 때때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드파워를 선호하지만, 여성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선호도를 비폭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프트파워를 선택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갈등으로 분열되어 살고 있는 대중들 사이에 화해와 신뢰 구축을 형성하는 구조가 되는 평화

저널리즘에 여성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주요 프로젝트 활동으로는 (1) 여성 기자/ 미디어 에이전시 대표/ 평화세우기 문제에 기여하고자하는 젊은 여성 및 남성 시민 운동가에게 평화 교육을 제공하고, (2) 평화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 파급시키기 위해 평화저널리즘을 사용한 특별 미디어 에피소드를 제작하여 여론에 영향을 준다.

그 결과 Zugdidi(Zugdidi), Gori(Gori) 및 Tbilisi(Tbilisi)에서 저널리즘을 통한 평화세우기에 관심있는 85명의 남녀 기자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3일간의 평화저널리즘 교육이 열렸다. 적극적인 언론인과 국제개발 활동가 및 평화 활동가들의 참여로 12개의 미디어 에피소드가 제작되었다. 미디어 에피소드는 소셜 미디어와 TV 방송국인 'Voice of Abkhazia'를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공유되었다. 평화저널리즘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평화저널리즘 자체의 개념이 조지아에 널리 알려지면서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가 달성되었다.

갈등 해결과 평화세우기를 위해서 아직도 조지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많지만, CFLI이 후원하는 이 평화저널리즘 프로젝트는 화해와 평화세우기를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균형과 공정성, 정확성의 개념을 새롭게 하여 평화 메시지의 확산과 평화저널리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크게 진전시켰다.

최고의 평화 저널리스트가 골든 주빌리 메달을 받다

세계 최고의 평화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인 글로리아 레이커 아디키 아치로(Gloria Laker Adiiki Aciro)는 우간다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난민 온라인 네트워크(Refugees Online Network)와 동아프리카 평화저널리즘 재단(Peace Journalism Foundation of East Africa)설립자인 레이커는 최근 우간다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가 수여한 골든 주빌리 메달(Golden Jubilee Medal)을 수상했다. 우간다에 대한 봉사와 충성심과 더불어, 미디어는 20년 동안 LRA(신의를저항군 Lord's Resistance Army) 분쟁을 취재한 레이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했다. 이 상은 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레이커의 헌신, 결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2월 6일에 우간다 북부 키트굼에서 상을 수여했다.

우간다의 다른 9명의 언론인도 국가에 대한 봉사를 인정받아 골든 주빌리 메달을 수상했다.



글로리아 레이커가 우간다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고 있다(우).



즈안즈 넬슨
(Nzanzu Nelson)
이 콩고 민주 공
화국 베니(Beni)
의 카바샤 커뮤니티
개발 라디오
(Kabasha Com-
munity Devel-
opment radio)
방송국에서 일하
고있다.

DRC 프로젝트 라디오의 힘을 빌다

조 도드 Jo Dodd

콩고 민주 공화국 (DRC)은 수십 년 동안 분쟁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린 나라다. 최근 평화와 대화를 촉진하고 폭력의 삶에서 전투원을 구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생명력 있는 수단으로 라디오를 사용하고 있다. 갈등해결센터 (Center for Resolution of Conflicts, CRC)는 동콩고 북부 키부(Kivu) 전역의 공동체 주도 평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지역 단체다.

IDRC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디오를 듣는다. TV에 적절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많은 농촌 지역은 전기가 부족한 지역이다),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인쇄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라디오가 뉴스와 정보의 주요 출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CRC는 지역 평화세우기 단체이며 북부 키부의 폭력 및 비무장화에 관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정보를 전파하는 주간 '라디오 클럽'을 통해 라디오의 힘으로 지역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있는 국제 자선 단체 피스디렉(Peace Direct)의 파트너다.

카디마의 인생 라디오쇼

카디마(가명)는 마이 마이 (Mai-Mai) 민병대에 가입했을 때 아직 학교에 다닐 나이였다. 카디마의 가족은 카디마를 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어린 소녀들처럼 거리에서 물을 팔고 다니거나 그것마저 어려워지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했다. 지푸라기 집에서 우울증에 빠져 살면서, 교육과 경제적 기회조차 붙잡기 어려워지자 카디마는 마이 마이(Mai-Mai)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조 도드 (Jo Dodd)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자 하는 국제 자선 단체 피스디렉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다. 이전에는 난민의 목소리에 힘을 실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 에딘버러의 컬러스(COLORS)를 공동 창립하고 운영했다.



“다른 소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봤어요. 그 애들의 인생은 쉬워 보였죠. 멋진 옷을 입고 있었고, 나처럼 일하지도 않았어요. 2007년에 나는 수풀 속 군대에 합류했지만, 아직도 내 삶을 찾고 있어요.” 카디마는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숙련된 전투원이 되었다. 카디마는 “나는 용감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빛났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디마의 단호함과 용감함은 오히려 민병대 지도자들의 성폭행을 불렀다.

“이런 상황은 삶을 마치고 싶을 정도로 내적 고통을 심화시켰어요.”

그 이후로도 5년 동안 이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카디마는 CRC가 군축과 비무장화, 재통합(DDR) 프로세스와 자기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전환점을 맞았다. 방송은 카디마에게 사회에 재적응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이를 통해 민병대를 벗어나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the PEACE JOURNALIST

뉴욕 타임즈 보도 사진이 아프리카 희생자를 하찮게 만들었다

스티븐 영블러드 Steven Youngblood

언론 매체가 직면하는 가장 곤란한 시험 중 하나는 범죄 현장이나 테러 공격 현장의 끔찍한 이미지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다. 지난 2019년 1월 케냐의 나이로비 오피스텔 단지에 가해진 공격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이 문제에 직면했다.

논평

1월 15일, 뉴욕 타임즈는 나이로비 공격으로 총알 자국이 난 희생자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자극적인 근접 사진을 게재했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케냐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Business Insider)의 조지 투베이 (George Tubei)는 '뉴욕 타임즈는 수많은 여타 외국 언론사가 아프리카의 피

투성이 포르노에 매료당하는 것처럼 그들도 무심한 난교를 참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썼다. 투베이는 타임즈가 2018년 캘리포니아 무차별 총격이나 9/11에서는 동일한 정도로 자극적인 사진을 게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진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타임즈는 1월 17일에 다음과 같은 해명보도를 냈다. '일반적으로 첨부된 사진 내용이 뉴스 기사의 중심이 아닌 경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혈흔 보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영향을 기록하는 것은 언론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 게시를 회피하면, 폭력의 영향을 모호하게 만들고 보안 및 테러에 대한 논쟁

을 허황되게 만듭니다.' 타임즈는 라스베이거스 총격사건의 희생자 사진을 게재했던 사례도 제시했다. '뉴욕 타임즈의 기사 아카이브를 보면, 사망한 미국인을 찍은 수많은 사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절대 사용되지 말았어야 할 사진이었고, 평화 저널리즘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필자의 책 '평화 저널리즘의 원리와 실제'에는 평화 저널리스트들이 자극적이지 않은 방식을 취하면서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민감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기자들은 테러나 범죄 현장에 대한 자극적일 수 있는 이미

다음 페이지에 계속

콩고

23페이지에 이어서

“저는 CRC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참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 프로젝트 '이누아 마이샤(Inua maisha)'에 대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전직 전투원을 위한 것이고, 농업과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농업 조합에 관심이 있었고 가입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훈련을 받았고, 활동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 카디마가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차별과 고립에 직면했다. 그러

나 CRC의 지원으로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재통합을 위한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카디마는 가족을 부양하며 자녀의 교육비를 내고 있으며,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꿈을 키우고 있다.

2017년 당시 주변 지역과 마을 약 2,000명의 청취자를 보유했던 '라디오 클럽'은 폭력에 시달리는 지역 사회에서 수천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라디오 클럽은 전투원을 비무장화하고 공동체 대화와 사회 통합을 도왔으며, 민병대

의 공격이 임박한 경우 경보를 울리는 경보 시스템을 운영했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다.

카디마의 이야기는 비폭력 및 개발을 주도하는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미디어 프로젝트가 가진 영향력을 입증한다. CR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eacedirect.org 에서 볼 수 있다.

피스디렉(Peace Direct)은 갈등 지역의 풀뿌리 피스빌더를 지원하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자선 단체다. 피스디렉은 갈등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갈등 지역 출신 풀뿌리 피스빌더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피스디렉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풀뿌리 평화세우기를 촉진하고 평화를 배운다.

즈안즈 넬슨(Nzanzu Nelson)이 베니(Beni)의 카바샤 커뮤니티 개발 라디오(Kabasha Community Development radio) 방송국에서 음향을 조정하고 있다(사진: Greg Funnell).



지의 게시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1. 이미지가 선정적인가? 이야기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진인가?

이 경우, 사진은 분명히 선정적이었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충격을 주기위한 의도였다. 분명히 독자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덜 자극적인 사진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2. 피해자의 가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인가? 우리가 사진을 게재하기 전에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 사진은 분명 희생자 가족에 2차 가해를 가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기억을

**알 사밥이
분명히
선택했을
법한 이미지다**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진이 당신의 아버지, 남편 또는 친구의 사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3. 어떤 방법으로든 사진이 공격/ 범죄를 미화하여 (전형적인 방식으로) 모방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가? 가해자나 테러리스트들이 바라는 내러티브에 도움이 되는 사진인가?

이 이미지는 공포와 공황상태를 조장하고자 했던 알 사밥 (공격을 가한 그룹)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사실, 알 사밥이 선택권이 있었다면 분명히 선택했을 법한 이미지다.

4. 미국과 서양 언론 매체의 입장에서, 해외 희생자의 사진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질문할 필요가 있다. 사망한 미국인이나 유럽인의 사진이라면, 동일한 피투성이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가?

미국인 희생자들에 관한 비슷한 사진도 게시된 바 있었다는 타임즈의 해명은 공허하게 들린다. 사망한 미국인의 사진이 게재되긴 했지만, 이 사진만큼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것은 없다. 범죄 현장이나 테러리스트 공격 현장에서 시



모자이크 처리된 2019년 1월 뉴욕 타임즈 보도 사진.

케냐의 테러 공격 희생자를 보여주고 있다.

체를 천으로 덮거나 200 야드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사진은, 가려지지도 않고 총알이 박혀 피 투성이가 된 채 고꾸라져 있는 희생자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서구의 언론 보도가 아프리카인이나 다른 개발 도상국 국민들을 폄하한다는 것을 약간의 정당화를 곁들여 믿는 편이다. 투베이는 비지니스 인사이더에서, 아프리카 희생자들에 관한 보도에서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는 이중 잣대가 있다”고 말한다. 믿거나 말거나, 서구 언론인은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더 많은 공감 능력과 감수성을 지니고 보도

를 해야 한다.

뉴욕 타임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좋다. 장차 마련될 지침에 평화저널리즘의 원칙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스티븐 영블러드(Steven Youngblood)는 피스저널리스트의 편집장이며, 평화저널리즘의 원칙과 실제(Peace Journalism Principles and Practices)의 저자로, 미국 미주리주 파크빌에 있는 파크 대학교에서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의 센터장이자 부교수로 일하고 있다.

평화저널리즘 자료

평화 저널리즘 자료는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의 웹 사이트 (www.park.edu/peace-center)- Resources”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사례 (PJ introduction, Reporting the World, American Hate Radio)
이슈 (Covering Civic Unrest, Language and PJ, Immigrants and PJ)
멀티미디어 (What is PJ video; Audio reports from Lebanon, Uganda)
웹사이트 (Solutions Journ. Network; PECOJON, IWPR, Fuller Project)
교과서/핸드북 (PJ resource packet; Conflict journalism handbook)

평화저널리즘 웹 사이트에는 ‘피스 저널리스트’ 잡지의 색인과 백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eace Journalist”를 클릭하세요.

지난 피스 저널리스트 매거진에는,
2018년 4월호- 에티오피아의 특별 평화저널리즘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
2017년 10월호- 카메룬, 파키스탄 및 에티오피아에서의 평화저널리즘 프로젝트
2017년 4월 - 아프가니스탄, 케냐, 시에라리온 보고서



the PEACE JOURNALIST



©2019 by Park University

미디어와 갈등 컨퍼런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다

하산 다니엘 다르 Hassan Danial Dar

2019 미디어와 갈등 국제 학회(ICMC) 컨퍼런스는 파키스탄 분쟁과 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 파키스탄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 주도 학술 활동이다. 이 컨퍼런스는 정보부 산하의 파키스탄 피스 콜렉티브(Pakistan Peace Collective, PPC)가 주최했다. 참석자들로 는 국내외 유명



학자, 수석 기자, 공무원, 의사소통 전문가, 반 극단주의 전문가 등이 있었다. 컨퍼런스는 파키스탄의 유명한 고등 교육위원회 인정 기관 중 하나인 이슬라마바드의 바리아 대학교(Bahria University)에서 개최되었다. 컨퍼런스에서는 파키스탄의 극단주의, 테러리즘 및 폭력을 주제로 하는 언론 담론에 대한 최신 연구를 발표하고, 파키스탄 전역의 미디어 산업 및 대학 수준에서 분쟁 보도 및 평화저널리즘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했다.

컨퍼런스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와 갈등에 관한 최신 국내외 연구를 밝히는 것

2. 고등 교육 부문의 이익을 위해 평화저널리즘에 관한 고등 교육 연구 허브를 개발하는 것.

3. 파키스탄의 갈등 보도를 전문화하기 위해 학계와 미디어 업계 간의 연계성을 개발하는 것.

4. 전국의 미디어 연구 부서에서 평화저널리즘에 관한 교육 시 사용가능한 대학 및 고등교육위원회용 연구 저장소를 생성하는 것.

5. 대학의 평화저널리즘 교육에 관한 모범 사례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

회의 참석자에는 파키스탄 대통령 아라프 알비(Arif Alvi), 내무부 장관 셰리야 아프리디(Shehryar Afridi), 정보부 장관 파와드 초드리(Fawad Chaudhry)이 있었으며, 국제 연사로는 호주 시드니 대학(University of Sydney)의 제이크 린치(Jake Lynch) 박사, 오슬로 메트로폴리탄 대학교(Oslo Metropolitan University)의 엘리자베스 이



하산 다니엘 다르(Hassan Danial Dar)는 BU TV Bahria University Media House의 특파원이자 ICMC 팀원이다. 하산은 현재 언론학 학사 과정을 밟고 있다.

데(Elisabeth Eide) 박사와 룬 오토센(Rune Ottosen)박사, 페이스북의 에린 마리 솔트만(Erin Marie Saltman) 등이 있었다. 일부는 Skype를 통해 발표했다.

회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 I: 갈등 커뮤니케이션 및 언론 보도에서 국가의 역할/ 주제 II: 종교 내부 폭력과 반소수자 폭력에 관한 언론의 내러티브/ 주제 III: 테러리스트 위협의 증가와 언론 보도/ 주제 IV: 소셜 미디어와 갈등.

전달 형식은 패널 토론, 슬라이드 및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이루어졌다. 바리아 대학교의 언론학부 학생들이 연구 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록을 남겼다.

미디어와 갈등 국제 학회 컨퍼런스(ICMC)는 갈등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다루는 파키스탄의 여타 컨퍼런스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평화적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더 많은 컨퍼런스가 조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 대통령 아리프 알비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ICMC 컨퍼런스에서 미디어와 갈등에 대한 개인 경험과 생각을 말하고 있다.

